

# 조선시대 일기자료 특성들에 대한 재검토

이 정 철\*

- I. 머리말
- II. 기존 일기 관련 연구사에 대한 재검토
- III. 전통시대 일기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조선시대 일기자료는 그 형식과 내용이 다양해서 오늘날의 일기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1990년 중반 이후 하나의 자료군으로 인식되었으면서도 아직까지 그 전체를 아우르는 표준적 분류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관찬문서가 보여주었던 조선시대상을 넘어서, 조선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하려면 자료군의 확장이 필요하다. 조선시대 일기는 바로 이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일기 자료에 대한 이해와 분류 역시 이런 목적에 조응해야 할 것이다.

일기자료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사 정리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즉시성’의 문제이다. 그 이유는 일기가 갖는 ‘현장성’의 근거가 바로 즉시성에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 pkaljc@daum.net

것처럼, 즉시성과 현장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었다는 가정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즉시성보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현장성과 관련된 것은 일기 내용에 담긴 ‘공간성’ 혹은 ‘지역성’인 듯이 보인다. ‘공간성’ 혹은 ‘지역성’은 ‘시간성’이나 ‘즉시성’보다 일기의 기록 ‘주체’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시선이 아닌 민간의 찰진한 현실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성이나 즉시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_\_\_\_\_

일기, 조선시대, 즉시성, 지역, 기록, 자료

## I. 머리말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일기를 활용한 조선시대사 연구가 점차 활발해졌다.<sup>1)</sup> 많은 조선시대 일기가 발굴되어 학계에 소개되었고, 그 중 일부는 국역되고 또 일부는 집중적인 연구의 조명을 받았다. 그에 따라 조선시대 일기의 내용과 형식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깊어졌다. 조선시대 일기가 많이 발굴되고 연구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사 정리도 몇 차례 이루어졌다. 흥미롭게도 각각의 연구사 정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당시 조선시대 일기자료에 대한 이해 수준을 반영했다.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은 2019년~2022년 사이에 ‘경상도 일기자료 목록 및 해제’라는 제목으로 한국학기초자료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조선시대부터 1945년 이전까지 작성된 경상도 일기자료들에 대해서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고, 그 중 일부를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조선시대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조선시대 일기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곳이 없기 때문이다. 개별 자료들이 어디 소장되었고, 어떤 자료가 국역되었으며, 각각의 자료들이 어떤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사업은 작업 대상이 한국 전체가 아닌 경상도 일기자료에 제한된다. 그럼에도 본 사업은 조선시대 일기 자료 전체를 목록화 하고 해제하는 것과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현재 전해지는 일기자료의 양을 기준으로 볼 때, 경상도 일기자료가 조선시대 전체 일기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들 중 많은 것이 조선시대 일기 자료의 특성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 될 수 있

1)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朝鮮時代史學報』79, 2016.

다. 하나는 일기자료 자체가 갖는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이 그것이다. 일기의 형식은 그 내부에 시간의 흐름이 표현된다는 점 말고는 다른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기가 갖는 다양성은 이렇듯 일기 자체가 갖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다양성 때문에 일기류 자료를 체계적으로 아우르는 것이 이제까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대 일기자료를 체계적으로 포괄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암묵적으로 상정하는 ‘일기’ 개념과 범주가 전통시대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지니기 때문이다. 전통시대 일기류에는 오늘날 일기라고 보기 어려운 자료들도 포함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일기에 대한 오늘날과 과거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 논문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경상도 일기자료 목록 및 해제’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이론적 문제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특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반성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조선시대 일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 정리를 재검토 한 후, 조선시대 개별 일기자료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현재의 연구 수준에서 전통시대 일기류의 특성과 범위를 가름하고자 한다.

## II. 기존 일기 관련 연구사에 대한 재검토

조선시대사 연구는 과거는 물론 지금도 여전히 주로 관찬사료를 주된 자료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나 각 관청의 등록류(臚錄類) 사료들이 그것이다. 1990년대 이전에도 일기자료가 조선시대사 연구에 활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때까지는 일기자료가 하나의 독자적인 자료군(資料群)으로 조선시대사 연구자들에게 인식되지는 못했다.

조선시대사 연구에서 관찬사료가 주로 이용되는 것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조선시대 관찬사료 자체가 대단히 풍부하고 상세하다. 조선시대 관찬사료는 조선시대 전체를 망라한다. 널리 알려졌듯이 조선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중앙집권국가였다. 이것은 국가 전체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문서행정 체계 위에서 가능했다. 이렇게 생산된 관찬사료만으로도 조선의 어느 시대이든 당대의 국정 운영이나 사회적 상황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시기에 살았던 개인들의 문집이나 고문서 등이 더해지면 당대를 재구성하는데 별다른 불편을 느끼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둘째, 관찬사료가 제공하는 ‘객관성’에 대한 믿음이다. 관찬사료는 그 자체로 특정한 편에서 지 않고 전체 입장에서 당대 상황을 전달할 것이라는 믿음을 준다. 비록 연구자들 모두가 그런 믿음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문제 등을 제외한다면 그런 믿음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일기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일찍 시작되었고,<sup>2)</sup> 198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sup>3)</sup> 그것이 본격화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이다. 이 시기 이전과 이후는 연구 성과의 양적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크게 보면 이것은 조선시대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연구주제의 확장과 심화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1990년대의 국제적, 사회적 환경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초반 세계적으로 진행된 탈냉전으로 한국사회에서도 탈이데올로기적인 경향이

2) 渡部學, 「17世紀朝鮮における初等教育の形態－治谷趙克善をめぐって－」, 『武藏大學論集』 7-2:3-4, 1959.

3) 구완희, 「朝鮮 中葉 士族孿子女의 贖良과 婚姻 : 『眉巖日記』를 통한 사례검토」, 『북한사람』 Vol.8 No.1, 1985.

金蓮玉, 「古日記에 依한 古氣候 研究 : 眉巖日記를 中心으로」, 『韓國文化研究院論叢』 58, 1990.

이성임, 「朝鮮中葉 兩班官僚의 經濟生活에 관한 一研究 : 柳希春의 『眉巖日記』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1990.

김윤우, 「咸陽 義兵有司 鄭慶雲과 『孤臺日錄』」, 『남명학연구』 2, 1992.

확산되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사 분야들 중 ‘생활사’가 새롭게 주목 받았다. 그런데 ‘생활사’는 기존의 관찬사료로는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였고, 일기자료가 이 주제를 위한 최적의 자료로 부상했다. 이를 계기로 관찬사료 이외에 풍부하게 민간에 남아있는 자료군으로 일기가 재발견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조선시대 일기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점점 더 많아졌다.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2000년대보다 2010년대에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일기자료 및 그 연구 전반에 대한 검토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를 대표하는 각각의 연구사 정리는 흥미롭게도 각 시기 일기 연구의 수준을 반영했다. 동시에 조선시대 일기자료에 대해서도 구별되는 인식을 보여주었다.<sup>4)</sup>

일기자료 및 그 연구에 대한 최초의 연구사 정리는 1996년 정구복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정구복은 1990년대 연구 수준에서 조선시대 일기의 성격에 대한 개념적 정리를 시도했다. 그가 조선시대 일기에 대해 부여했던 개념 규정들은 오늘날의 그것들과는 다소 달라졌다. 하지만 일기자료의 특성 내지 성격에 대해 그가 개념 규정을 시도했던 지점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구복이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특성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이후 일기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재검토되었다.

정구복은 조선시대 일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기라 함은 개인이 매일 매일 경험한 바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는 문학의 한 장르로서 그 형식은 산문이며 수필문학의 범주에 속한다.<sup>5)</sup> ... 일정한 기간 중 반드시 매일 매일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일기가 갖추어야할 필요조건은 기술한 날짜가 기록된 날짜에 아주 가까운 시간

4) 정구복,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한국학』Vol.19 No.4, 1996.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황위주, 「日記類 資料의 國譯 現況과 課題」, 『고전번역연구』1, 2010.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朝鮮時代史學報』79, 2016.

5) 장순덕, 『한국수필문학사』, 새문사, 1985.

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성된 시간이 몇 달이나 몇 년이 지난 후이면, 회고록은 될 수 있어도 일기는 될 수 없다. 일기는 즉시(即時)의 기록이며 이 점에서 기록의 사실성이 회고담에 비하여 대단히 높다.”<sup>6)</sup>

정구복은 일기에 대한 장순덕의 개념 정의를 빌려왔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적어도 1990년 이전까지 조선시대 일기자료는 역사학보다 국문학 연구에서 더 많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다.<sup>7)</sup> 이는 1990년대까지도 조선시대 일기에 대해서 역사학적 개념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정구복은 일기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즉시성(即時性)’을 들었다. 즉시성은 “기술한 날짜가 기록된 날짜에 아주 가까운 시간이어야 한다.”는 말로 표현되었다. 요컨대 기록자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기록 사이의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구복은 이러한 즉시성이 “기록의 사실성”, 다시 말해서 실제 있었던 상황에 대한 편집되지 않은 기록이라는 일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했다. 즉시성에 대한 강조는, 정구복이 비록 일기 개념을 국문학 분야에서 빌려왔지만, 일기자료를 대하는 입장이 역사학적 관점에 서있음을 뜻한다.

정구복은 조선시대 일기를 크게 공적 일기와 사적 일기로 구분했다. “일기는 공적인 일기와 사적인 일기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인 것으로는 승정원일기, 각사등록이 포함된다. 개인 문집에 흔히 전하는 경연일기도 공적인 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구복은 일기를 공적 일기와 사적 일기로 구분하면서도 사적인 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일기는 공적 일기이건 사적 일기이건 간에 자료의 현재성(現時性)이 어느 다른 자료보다 강한 장점을 가진다. 이는 후일에 편찬되는 실록이 편찬관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하여 가감됨에 반해서 당시의 기록은 이런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날 바로바로 적거나 늦어도 하루 이틀 사이에 기술

6) 정구복, 앞의 논문, 9쪽.

7) 김정운,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활용 사례와 전망」, 『일기류 자료의 종합조사와 방법론』, 2019. (2019 영남문화연구원 한국학기초자료사업 학술회의 자료집)

됨으로 인하여 자료가 즉시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이 점에서 후일에 기술한 회고담의 내용보다 훨씬 큰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sup>8)</sup> 요컨대 정구복은 공·사 간 기록 주체의 차이보다 즉시성 여부를 일기의 더 중요한 조건으로 이해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승정원일기를 공적 일기에 포함시키면서도 조선왕조실록을 그 범주에서 배제했다. 후일에 편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정구복은 조선시대 일기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선조의 역사를 통치자, 지배자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전 국민의 역사로 서술하여야 함은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역사가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역사를 이렇게 쓰려면 역사가의 의식의 전환이 우선 필요함은 물론이지만 이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가 발굴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일기를 쓴 사람들은 거의 다 지배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 그러나 일기는 작가의 생활 주변에 접촉하고 살았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자료이므로 해서 지배층이 아닌 하층민의 실상을 알려줌에는 국가에서 편찬한 연대기적 자료나 다른 자료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일 수 있다. (... 일기는) 역사를 전 국민의 역사로 승화시켜 서술할 수 있는 자료이다.”<sup>9)</sup> 일기자료에 대해서는 흔히 관찬사료에 비해서 필자의 주관성이 두드러지고, 사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 ‘상식’처럼 여겨진다. 정구복의 위의 말은 이런 ‘상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서 정재훈의 다음 말은 그 단서를 확장시킨다.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가치는 관찬사료 중심의 역사 연구와 서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관찬에 대비되는 사찬, 공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인의 사적 영역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일기로 명명되는 자료의 특징을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자료의 가치를 충분하게 조망하기 어렵다. 공동체에서 벗어난 개인이 자신의 사적 영역을 온전하게 설정하고 그것이 보호되는 것은 (동서양을 막

8) 정구복, 앞의 논문, 9쪽.

9) 정구복, 앞의 논문, 13쪽.



론하고) 20세기를 전후로 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 관찬사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기자료의 가치는 개인의 느낌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만이 아니라 관찬사료에서 볼 수 있는, 혹은 파악되지 못하는 개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이나 향촌의 공동체 등의 기록을 포함하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요컨대, 일기는 통치 목적의 관찬사료와는 다른 입장에서 국가기구가 보여주지 않은 좀 더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 일기자료는 통치 목적을 지닌 국가의 입장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관찬자료는 객관적이고 일기는 주관적이라는 기존 관점은 재고되어야 한다.

정구복의 조선시대 일기자료에 대한 이해는 역사학적 입장에서 보면 과도기적 성격을 띤다. 전통시대 일기의 특성을 개념화 하는 과정에서 문헌사 연구의 성과를 가져왔으면서도 역사학적 입장에서 현장성과 관련된 ‘즉시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일기를 공적 일기와 사적 일기로 구분하면서 전자가 객관적이고 후자가 주관적이라고 성격 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10년에 황위주는 각각 두 편의 일기 관련 연구논문을 통해서 조선시대 일기자료 및 연구 상황에 대한 정리를 시도했다.<sup>11)</sup> 조선시대 일기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된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의 성과를 총괄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2007년 논문에서는 전국 주요 도서관과 문집 저술 등에 산재해 있는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를 조사하여 그 개략적 현황을 살폈다. 여기서는 모두 1,600여 건에 이르는 일기에 대한 분류를 시도했다. 2010년 논문에서는 특히 일기자료의 국역(國譯) 현황과 향후 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황위주는 이전의 일기 관련 연구사를 정리하면서, 연구사 정리 대상으

10) 정재훈,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가치와 종합조사의 필요성」, 『일기류 자료의 종합조사와 방법론』, 2019.(2019 영남문화연구원 한국학기초자료사업 학술회의 자료집)

11) 황위주, 앞의 논문, 2007.

황위주, 앞의 논문, 2010.

로 삼았던 일기류 자료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음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1996년 정구복은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10건, 한국문집총간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자료 113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미 발간 자료 13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수집한 미 발간 자료 43건 등 전체 약 280여건의 자료를 찾아 서명, 저자명, 기록 시기, 권·책 수 등 4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듬해 염정섭은 규장각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등 4개 기관의 도서목록을 검색하여 규장각 소장 485건, 장서각 소장 162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54건,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306건, 도합 1,107건의 자료를 찾아, 서명, 청구기호, 편저자, 권·책수 등 4가지 서지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했다.<sup>12)</sup> 황위주는 조사 범위를 전국 주요 도서관 전체로 확대하고, 조사 항목을 ‘서명’ ‘저자’ ‘형태서지’ ‘기록시기’ ‘기록분량’ 및 ‘간략내용’까지 구체화시켜 일기류 자료 전반에 대한 실상 파악을 새롭게 시도했다.<sup>13)</sup> 그 결과 조선시대 왕실과 중앙·지방의 관청을 비롯하여 각종 단체와 개인이 작성한 일기류 자료 약 1,600여 종의 실상을 확인하였고, 이를 소장기관, 작성주체, 기록시기, 주요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했다.

황위주는 앞서 정구복이 그랬듯이, 관찬사료와 일기를 나누는 구분선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일기자료에 대한 황위주의 분류법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전체 일기자료를 작성 주체에 따라 대분류 하고, 다시 이를 중간 분류, 세부 분류 하였다. 대분류 단위는 관청, 단체, 개인으로 설정하였다. 대분류 단위인 관청의 중간 분류 항목으로는 국왕 관련, 세자 관련, 종친 관련, 중앙관청, 지방관청 등을 두었다.

황위주의 서술에는 그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일기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는 단서가 제시된다. “(기존의 일기자료 국역에서) 일기의 특성이 뚜렷한 자료보다 사행(使行), 의병, 동학, 유람 등 특정 사안과의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이 때문에 정

12)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24, 1997.

13)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

작 기술 내용이 많고 흥미로운 일기를 제외하고 오히려 일기의 성격이 미약한 자료를 다른 목적 하에 국역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일기류 자료 가운데 질·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생활일기, 그 중에서도 벼슬살이 경험을 기록한 사환일기와 기록 내용 자체가 방대한 종합생활일기였다. 그리고 관청일기 가운데도 국왕이나 세자에 관련된 것은 기록 양이 많고 상세하며, 50여개 관청 일기도 각 기관의 운영 실상을 살펴보는데 대단히 요긴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기타 상소를 위해 임시로 운영한 소청일기, 유배와 해배의 과정을 기록한 유배일기 등도 종류가 많고 특징이 뚜렷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기류 자료 국역은 대부분 이런 주요 자료를 외면하였으며, 사행 전란 의병 동학 유람 등 일기의 특징이 오히려 더 미약한 것들에 편중되었다.”<sup>14)</sup>

황위주는 “일기의 성격이 미약한 자료”라는 말을 통해서 ‘사행·전란·의병·동학·유람’ 관련 일기의 일기적 특성이 비교적 약하고, 사환일기와 거질의 종합생활일기는 일기로서의 특성이 비교적 강하다고 인식했다. 소청일기, 유배와 해배 과정을 기록한 유배일기 등도 일기 특성이 비교적 높은 일기로 이해했다.

2016년 박현순은 그때까지 학계에 소개된 일기자료 및 연구 상황에 대한 정리를 시도했다.<sup>15)</sup> 황위주의 연구사 정리가 있지만, 그것은 역사학 쪽 관점보다는 한문학 혹은 국역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검토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기를 활용한 조선시대사 연구가 점증적으로 활성화 된 이래, 사실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기 연구에 대한 역사학 쪽의 본격적 정리라 할 수 있다. 박현순이 조선시대 일기의 특징들에 대한 기존 인식 중에서 반론을 제기한 것은 ‘즉시성’ 문제이다.

박현순은 일기가 즉시적 기록 즉, 사안의 발생 시점에 즉한 기록이며, 가공되지 않은 1차적 기록이라는 관점이 공유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지점에서 그는 일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문학계에서는 즉시성을 일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환기시켰다. 그 연장

14) 황위주, 앞의 논문, 2010.

15) 박현순, 앞의 논문, 2016.

선상에서 그 자신도 즉시성을 모든 일기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박현순은 모든 일기자료의 기본 속성으로 즉시성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몇 가지 제시했다. 우선 현재 전하는 일기의 상당수가 필자 친필본이 아니라 후대의 전사본(傳寫本)이다. 일기가 필자 후손들에 의해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sup>16)</sup> 그의 지적대로 문집에 수록된 일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일기 필자의 친필본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필자 자신이 1차 기록 후에 나중에 기록했던 내용에 추기(追記)하거나, 더 나아가 이전에 쓴 일기를 다시 정리하여 후고(後考)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내용들을 삭제하고 그 경위를 일기 뒤에 기록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기를 처음 기록한 후에, 필자 자신이 그것을 나중에 편집했던 것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일기들 중, 오랜 기간에 걸쳐 쓰인 ‘생활일기’의 비중은 대단히 낮다. 오히려 특정한 시간에 있었던 특정한 사안을 다룬 일기가 양적으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런 일기는 그 특성 상 즉시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작성되었거나 편집을 거친 자료라는 점에서 생활일기와는 성격이 다르다. 요컨대 우리가 일기자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기록의 즉시성을 들고 이를 통해서 필자 중심의 현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일기에 대한 오늘날의 관점 위에서 역사자료로서의 일기라는 측면을 중시하는 가운데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기 연구의 성과에 따르면 전통시대 일기는 오늘날 우리가 ‘일기’라는 단어로 연상할 수 있는 것 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오늘날 관념에서는 일기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전통시대에는 일기 범주에 포괄되었다. 오늘날의 일기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 전통시대 일기를 일기 범주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필요한 일

16) 이성임은 최근 연구에서 16~17세기에 대표적인 일기인 『목재일기』, 『쇄미록』, 『계암일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이성임,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朝鮮時代史學報』89, 2019 참조.)

은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어떤 다양성을 포괄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 장은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 Ⅲ. 전통시대 일기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

전통시대 일기자료가 보여주는 내용과 형식의 큰 다양성은 ‘경상도 일기자료 목록 및 해제’ 사업과 관련해서 하나의 과제를 제시한다. 그것은 일기의 외양을 띤, 혹은 필자 스스로 무슨 무슨 ‘日記’라고 제목을 붙인 다양한 형식의 기록들을 어느 수준까지 일기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기’, ‘일록’, ‘일승’ 등 그와 유사한 제목을 지닌 자료들이 모두 일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경상도 일기자료 목록 및 해제’ 사업에서 검토되는 일기가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곳은 한국국학진흥원이다.<sup>17)</sup> 아래에서는 이곳에 소장된 일기를 대상으로 그 특성을 검토하면서,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논점별로 정리하였다.

#### 1. 시간 표기 형식

일기는 자유로운 형식의 기록이지만 그럼에도 일기이기 위한 한 가지 조건만 들어야 한다면 ‘시간의 흐름’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일기 자료에서 대단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 ① 『기년記年』

경북 예천에 살았던 이규홍(李圭洪, 1851~1918)이 자신이 죽기 두

---

17) 한국국학진흥원은 현재 한국에서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일기자료를 집적하고 있는 곳 중 한 곳으로 평가된다. 이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유교넷(<http://www.ugyo.net>)에는 이 기관이 가진 일기자료가 지속적으로 정리 축적되고 있다. 아래 제시되는 일기자료는 모두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전인 1916년 12월까지의 일들을 월별로 기록한 자료이다. 이 기록은 마치 이규홍의 연보(年譜) 같은 성격을 띤다. 날짜에 따른 구성이 아니라 월별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기록했다.

### ② 『도산서원복주시일기陶山書院復生時日記』

경북 예천에 살았던 학암(鶴岩) 장화식(張華植, 1853~1938)이 1901년 11월 4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도산서원에서 이황의 위판(位版)이 분실되어 그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일기’라는 제목 하에 연월일을 나눠 기록하지 않고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요컨대 연월일을 먼저 쓰고 그 아래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서술된 내용 속에 월일이 포함되었다.

### ③ 『동유록東遊錄』

경남 의령에 살았던 의암(宜菴) 안덕문(安德文, 1747~1811)이 1803년 8월 15일부터 10월 초까지 약 두 달 간 경상도 일대를 유람하고 지인들과 교유한 내용을 기록한 기행일기이다. 처음 출발한 날짜 외에는 연월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평명(平明)’, ‘조(朝)’, ‘익조(翌朝)’ 하는 식으로 그 서술 속에 날짜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적어 놓았다. 이 때문에, 여행 기간이 거의 두 달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필자는 여행 경로를 자세하게 나열했다.

### ④ 『무기행력戊己行歷』

필자는 미상이다. 필자의 할아버지와 숙부의 효행 정려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 일기는 첫날에만 년의 간지(干支), 달과 일, 일의 간지를 적었고, 다음부터는 날짜 간지만 표시하였다. 여컨대, 날짜가 적혀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 때를 특정할 수 없다.

### ⑤ 『유금오산기遊金烏山記』

필자는 경북 구미에 살았던 만와(晩窩) 김유수(金裕壽, 1695~1761)

이다. 첫날은 ‘九月中’ 마지막 날은 ‘癸亥 十月之朔’으로만 표기되었다. 서술 내용에 ‘시간 흐름’은 나타나지만, 날짜를 특정하기 어렵다.

#### ⑥ 『행정면례시일기杏亭緬禮時日記』

임진년 4월 18일 경북 안동과 영덕에 살았던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후손들이 행정(杏亭)으로 조상의 산소를 이장할 때 일을 기록한 일기이다. 일기에는 간지로 월일이 적혀있지만 정작 그 시기가 언제 인지를 바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내용을 분석하면 그 시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⑦ 『환시일록(權侍日錄)』

경북 상주에 살았던 월간(月澗) 이전(李堧, 1558~1648)의 셋째 아들 서계(西溪) 이신규(李身圭, 1600~1681)가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전은 창석(蒼石) 이준(李峻, 1560~1635)의 형이다. 일기에는 “하루는 옆에 모시고 있다가(一日侍側)”라는 어구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그 서술 속에 일시가 특정되지는 않았다.

#### ⑧ 『재거일기 병술齋居日記 丙戌』, 『재거일기 정해齋居日記 丁亥』

필자는 미상이다. 날짜 표시가 없고, 각각 한 해의 독서한 내용만 들어있다. 다만, 제목 아래에 소주 형식으로 정월부터 12월 그믐까지라고 기록하였다.

통상 일기의 가장 중요한 형식으로 그 내용에 ‘시간 흐름’이 나타나야 한다고 암묵적으로 상정된다. 하지만, 날짜나 시간이 표현되었다고 하여 모두 일기로 볼 수는 없다. ‘연보’나 ‘행장’ 등은 일기가 아니다. 그것은 필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신의 경험을 적은 ①『기년記年』은 비록 월 단위로 기록되었지만 일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기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날짜 단위가 아닌 월 단

위로 기록된 것일 수도 있고, 기록의 처음과 끝만을 표시한 것일 수도 있고, 시간 흐름은 기록되었지만 오늘날 당시의 날짜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간지로 표시한 경우도 있다. 이들 모두 일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날짜 표기는 없어도, 날을 단위로 구분하여 기록한 ⑦『환시일록權侍日錄』 역시 일기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날짜 표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연한다면, 서술 내용에 날짜가 나오기는 하지만 연월일을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즉, 날짜를 먼저 기록하고 내용이 서술되기 시작하는 형식이 아니라, 위 ②번 사례처럼 서술 내용 속에 자연스럽게 날짜가 나오는 경우이다. 적지 않은 조선 시대 일기가 이런 형식을 취했다. 그런 자료들 중 많은 것들에 무슨 무슨 ‘日記’라고 제목이 달려있다. 필자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일기로 생각했던 것이다. 위에 예시된 자료는 모두 일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2. 기록 기간에 대해서

일기의 여러 형식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일기가 여러 날, 여러 해에 걸친 기록이라는 점일 것이다. 그런데, 그 여러 날은 어느 정도면 일기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까? 전통시대 일기 자료들 중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일기는 적은 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일기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만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들 중 적지 않은 것들에 필자들은 스스로 무슨 무슨 ‘日記’라고 표기했다. 일례로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안동에서 살았던 강봉문(姜鳳文, 1735~1815)은 1788년 11월 17일 하루에 있었던 분황례를 기술하고 그 글머리에 『분황일기焚黃日記』라고 제목을 붙였다. 그렇게 기록된 일기는 기록자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고,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한 기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특별한 경험이 수일을 지속했던가 혹은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는가를 구분하는 것은, 일기에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루나 이들의 기록은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에 올라있는 일기 기록들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적지 않은 여행기록도 여기에 해당한다. 일기자료의 주제별 범주들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도 여행 기록일 것이다. 박현순에 따르면 여행기, 사행록, 유배기 같은 글을 일기로 파악한 것은 우리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미 중국의 당송대에 사행기, 여행기, 유배일기 등이 창작되었고, ‘일기’, ‘일록’, ‘日曆’, ‘○○記’, ‘○○錄’ 등이 유사한 성격의 글을 가리키는 제목으로 혼용되었다.<sup>18)</sup> 하루나 이들의 여행기록으로 다음 사례들을 들 수 있다.

### ① 1일 기록 사례

구은(龜隱) 변진탁(邊振鐸, 1769~1836) 『관호야범기冠湖夜泛記』, 경북 구미에 살았던 동곽(東郭) 김기찬(金驥燦, 1748~1812) 『동정록東征錄』, 『백운동심원기白雲洞尋院記』, 성호(星湖) 이익(李穡, 1681~1763)의 『방백운동기訪白雲洞記』, 『알도산서원기謁陶山書院記』, 학음(鶴陰) 심원열(沈遠悅, 1792~1866)의 『서지하화기西池荷花記』, 의령 출신의 우곡(愚谷) 박신윤(朴身潤, 1661~1698) 『알향재선생문목일기謁恒齋先生問目日記』, 송애(松厓) 김경여(金慶餘, 1596~1653)의 『영귀정범주기詠歸亭泛舟記』, 경북 군위에 살았던 물계(勿溪) 홍구서(洪龜瑞, 1726~1779)의 『원직일기院直日記』, 이병규(李炳奎) 『유가야산기遊伽倻山記』, 경북 고령에 살았던 만구(晩求) 이종기(李鍾杞, 1837~1902)의 『유남호록遊南湖錄』, 청성(靑城) 성대중(成大中, 1732~1809)의 『유내연산기遊內延山記』, 경북 청송에 살았던 향은(巷隱) 이응협(李膺協, 1826~1894)의 『유단서굴기遊丹書窟記』, 필자 미상의 『임산서당일기霖山書堂日記』 등

### ② 2일 기록 사례

청송에 살았던 매야(邁埜) 서활(徐活, 1761~1838)의 『기소호행기蘇湖行』, 경북 포항에 살았던 약남(藥南) 이헌락(李憲洛, 1718~1791)의 『구월산록九月山錄』, 필자 미상 『병오일기丙午日記』, 경북 칠곡에 살았던 백

18) 박현순, 앞의 논문, 2016, 92쪽.

불암(百弗庵) 최흥원(崔興遠, 1705~1786)의 『유가야산록遊伽倻山錄』 등

### 3. 사환일기와 공문서의 구분

오늘날에는 개인의 ‘사적’ 경험을 여러 날에 걸쳐서 담은 기록을 통상 일기로 상정한다. 하지만 전통시대 일기자료의 내용과 형식은 그보다 훨씬 다양했다. 그 대표적인 범주 중 하나가 사환일기(仕宦日記)이다. 사환일기는 그 특성상 공적인 내용과 사적인 내용이 섞이기 마련이다. 개별 일기에 따라 내용에서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비율은 다양하다. 필자 개인의 사적인 내용이 중심이지만 필자가 공적으로 담당했던 업무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나아가서 일기 형식을 띠지만 내용은 공문서 그 자체인 경우도 있다.

#### ① 『임진왜란시장계壬辰倭亂時狀啓』

영남조도사(嶺南調度使) 성안의(成安義, 1561~1629)가 1598년(선조 31) 8월 29일 안동에서부터 그 이듬해 7월 25일까지 경상도 안동, 의흥, 경주, 안강 등지에서 19회 올린 장계 모음이다. 이어서 1600년 4월 29일 양향(糧餉) 관리를 게을리 한 거창현감 류운룡의 처치(處置)에 관한 장계까지 수록하였다. 경연일기처럼 공적인 성격이 강한 일기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영영장계등록嶺營狀啓謄錄』

감사(監司)로서 감영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조정에 장계로 올리기 위해 자료 정리, 혹은 초고 형태로 자세하게 적은 글이다. 아마도 조재호(趙載浩, 1702~1762)의 기록인 듯하다. 그는 좌의정 조문명(趙文命)의 아들이자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의 비(妃)인 효순왕후(孝純王后)의 오빠이다. 울산 앞바다에 왜선이 출현했다는 사실부터, 사도세자의 죽음을 두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담은 글까지 담고 있다. 감영 내에서 벌어졌던 사건들과 상황을 자세하게 적었다. 때문에 공적인 기록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서명은 ‘등록(騰錄)’이지만 사적인 감정과 경험이 들어있다.

### ③ 『재영남일기在嶺南日記』

경북 영주와 풍기에 살았던 용헌(慵軒) 황사우(黃士祐, 1486~1536)가 1518년 11월 17일부터 1520년 9월 8일까지 경상도 도사(都事)에 제수되어 영남지역을 순시하며 기록한 것이다. 공문서는 아니다. 사환일기에 속한다.

### ④ 『분발기략分撥記略』

어느 관청에서 각 관원들이 분담한 일에 대하여 보고 들은 것들을 대략적인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필자는 미상이다. 후일의 정식 공문서 기록 작성에 대비하여 써 둔 간략한 메모나 초안으로 추정된다. 1859년~1862년 사이에 일어난 대소사(大小事)의 전말(顛末)과 중요한 임금의 명령, 임금에게 올린 보고, 사건의 목록 등을 모아 기록했다.

전통시대 일기자료의 범위를 필자의 ‘사적’ 경험에만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일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념에 더 부합하는 느낌이다. 조선시대 일기 기록자들은 압도적으로 양반층이다. 사회적으로 그들은 잠재적인 관리였다. 그들의 의식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 몹시 어렵다. 이때 중요한 판단 기준은 기록 내용에 필자의 사적인 판단이나 감정이 일부라도 포함되었는지, 일기 기록이 행정적 요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자발성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를 여부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의 사례는 모두 일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복수의 필자와 일기

우리는 흔히 하나의 일기를 한 사람이 썼으리라 상정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일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한 사람이 여

러 개 일기를 남기기도 했고, 한 일기의 필자가 여러 명인 경우도 있다.

- ① 경북 안동에 살았던 류영희(柳泳熙, 1890~1960)는 1909년부터 1960년까지 무려 50여 년 동안 일기를 썼다. 매년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 그 해 일기의 제목을 정하고 그 의의(意義)를 서문에 설명했다. 그 예를 들면, 「수문록(輸聞錄, 1910)」, 「구신록(求新錄, 1911)」, 「관박록(觀剝錄, 1913)」, 「정매록(征邁錄, 1915)」, 「구성록(求誠錄, 1916)」, 「응천록(應天錄, 1917)」, 「징성록(懲省錄, 1918~1919)」, 「득신록(得新錄, 1920)」, 「존실록(存實錄, 1923)」, 「수실록(輸實錄, 1924)」, 「일성록(日誠錄, 1933)」, 「검성록(檢誠錄, 1934)」, 「징구명(懲舊銘, 1935)」, 「성성록(惺省錄, 1954~1960)」 등이다.
- ② 안동에 살았던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도 여러 권의 생활일기를 남겼다. 「기미력己未歷」(1739), 「기묘력己卯歷」(1759, 1751), 「경인력庚寅歷」(1770~1774) 등이다.
- ③ 경주에 살았던 송호(松壕) 류정(柳汀)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다. 『송호유집松壕遺集』은 류정에 이어 그의 조카와 손자가 차례로 이어서 쓴 전쟁기록이다.
- ④ 필자 미상의 생활일기 『송정일월崇禎日月』도 19세기 초반 한 집안의 3대가 이어서 쓴 일기이다.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해 둔 종합 기록물이다.

류영희가 쓴 여러 제목의 책자들을 하나의 생활일기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즉 하나의 일기를 여러 명이 썼다는 것은 오늘날의 일기 관념과 일치하지 않는다.<sup>19)</sup> 하지만 이런 경우는 조선시대 일기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사례이다.<sup>20)</sup> 위 ③, ④

19) 정구복은 일기를 개인의 기록으로 규정한다. (정구복, 「조선시대 일기의 사료적 가치」, 『장서각 ACADEMY 2012년도 역사문화강좌』, 2012 참고.)

20) 최은주는 한 집안에서 복수의 사람이 이어서 쓴 일기 6종을 소개하였다. (최은주,

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외에도 많이 알려진 일기 『저상일월(渚上日月)』도 같은 범주이다. 개인과 가족, 개인이 그 주변과 맺고 있는 관계의 성격은 조선시대와 지금이 크게 다르다. 다시 말해서 ‘개인’ 그 자체가 역사적 변화의 내용 속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기의 필자를 한 명의 개인에 고정시키는 것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일기가 반드시 개인의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5. 즉시성의 문제

즉시성의 문제, 즉 일기 필자의 경험과 그에 대한 일기 기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일기마다 많은 편차가 있다. 당일의 일을 당일에 기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시간적 간격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경우 잊지 않기 위해서 간단한 메모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일기의 형식으로 기록될 수 있다.

### ① 『퇴헌일기退軒日記』

대구에 살았던 퇴헌(退軒) 전극태(全克泰, 1640~1696)가 자기 생애에서 가장 비통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1658년에 관례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1663년 9월 4일까지 기록하였다. 전극태는 서문에서 자신의 일기는 다른 사람들이 쓴 일기와 다르다고 말한다. 역지로 쓰는 일기가 아닌 정말로 쓰지 않으면 안 되었고, 남은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려려고 일기를 쓴다고 밝히고 있다.

일기에는 필자의 개인적 절실함이 들어있다. 사회적 사건에 끌리는 것도 인지상정이지만, 전극태처럼 비사회적인 일도 절실한 경험의 소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비록 경험과 기록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명실상부하게 일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大東漢文學』30, 2009 참고.)

## ② 『기년記年』

이규홍(李圭洪)이 자신이 죽기 두 해전인 1916년 12월까지의 일들을 월별(月別)로 기록한 것이다. 경험과 기록 사이에 상당히 많은 시간적 괴리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 ③ 『사문기문師門記聞』

필자는 경북 성주에 살았던 일헌(一軒) 이규형(李圭衡, 1879~1952)이다. 제목은 '스승의 문하에서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라는 뜻이다. 7년에 걸친 언행록임에도 기록된 양이 13면에 불과하다. 아마도 매일 쓴 일기가 아니라 나중에 정리하여 기록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 ④ 『한거일기閑居日記』

경북 칠곡에 살았던 파강(巴江) 이경록(李經祿, 1736~1804)의 일기이다. 회갑을 지난 한가한 어느 날에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쓴 것이다. 노년이 된 시점에 생애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을 떠올리는 의미로 썼다.

기록들은 일기 내용이 된 필자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기록' 사이에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오늘날 관념으로 본다면 그것은 '자서전'이나 '회고록'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 기록에 대해서 필자들은 '일기'라는 제목을 붙이거나, '기년'같이 제목에 시간성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것들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일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6. 일기 내용의 중첩성

기존 일기 관련 연구사 논문들에서는 조선시대 일기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류 기준을 설정했다. 기록 주체에 따라 또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범주가 제시되었다. 각각의 분류 기준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떤 논문도 표준적인 분류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것은 조선시대 일기들이 형식은 물론 내용상 주제에서도 매우 다양하고 중첩적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일기들이 그 내용에서 하나의 단일한 주제로 포괄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주제의 다양성과 중첩적 성격을 띤 경험의 사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기자료 그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일기 주제의 중첩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지만 든다면 아래와 같다.

### ① 『기소호행記蘇湖行』

필자는 경북 청송에 살았던 매야(邁埜) 서활(徐活, 1761~1838)이다. 그 내용은 1806년 1월 14일과 15일 이틀간 안동에 살았던 면암(倅庵) 이우(李堉, 1739~1810)가 유배를 떠나기 직전 필자와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우는 이상정의 동생 소산(小山) 이광정(李光靖, 1714~1789)의 아들이다. 소호(蘇湖: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는 이우가 살던 지역 이름이다. 이 일기를 유배일기나 생활일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 ② 『남행일기南行日記』

경북 군위에 살았던 농산(農山) 이광덕(李匡德, 1762~1824)의 일기이다. 필자가 경남 기장(機張)으로 유배를 간 홍시제(洪時濟)를 찾아가 위로하러 가는 일정을 적은 것이다. 총 17일의 일정인데, 전형적인 여행일기는 아니다.

‘유배’는 조선시대 관리나 선비들에게 크게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유배는 당사자나 그 주변 인물들에게 생애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적지 않은 유배일기가 전해진다. ‘유배’ 경험을 일기로 남겼던 것은 유배가 사회적 일탈에 대한 처벌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정치적 행위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기 내용에는 유배자의 정치적 당당함의 감정과, 주변의 온정적 시선이 표현되었다. 이 일기를 단순히 여행일기나 유배일기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오고가는 길에서의 경험이 목적이 아니기에 ‘여행’이라하기 어렵고, 본인이 귀양을 간 것이 아니기에 ‘유배일기’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어

럽다.

### ③ 『남귀일기南歸日記』

1800년 호곡(壺谷) 류범휴(柳範休, 1744~1823)가 안변 부사(安邊府使)로 재임하고 있을 때, 사직 상소를 올리고 고향 안동으로 돌아갈 계획으로 한양으로 가는 여정을 그의 아들이 수행한 일기이다. 1800년 3월 4일 필자가 부친과 안변 관아를 출발한다. 고산(高山), 철령(鐵嶺), 회양(回陽), 인제(麟蹄), 김화(金化), 금성(金城), 경기도 양문(揚文), 송아(松阿), 한양 초입까지 8일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여행도 아니고, 사환도 아니고, 일상생활도 아니다.

### ④ 『북성록北省錄』

필자는 위 『남귀일기南歸日記』의 필자와 같다. 1800년 호곡 류범휴가 3월 사직상소를 올렸다가 다시 안변 부사로 돌아가 있을 때, 안동 수곡리(水谷里) 대평(大坪)에 있는 아들이 부친을 뵈러 안변으로 가는 기록이다. 분류상 여행일기이지만 일반 여행과는 다르다. 아버지를 찾아뵙고 돌아가는 내용이다.

유사한 성격의 일기로 경남 웅천(熊川) 출신의 무민당(無悶堂) 이여규(李汝圭, 1713~1772)가 쓴 『북정일기北征日記』가 있다. 그의 부친이 함경남병사의 종사관이었기 때문에 부친을 만나러 가는 기록이다. 도중에 보고 들은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좋은 경치를 만나면 아름다운 시도 여러 편 지어 기록하였다. 이 일기는 『북성록』보다는 여행일기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

### ⑤ 『대중기일臺中記日』

안동에 살았던 귀애(乖厓) 류지(柳檣, 1626~1701)의 일기이다. 1676년 8월 2일 필자가 성균관 직장(直講)에 임명된 때부터 9월 6일 서울로 출발하여 13일 서울에 도착하고, 이듬해인 1677년 1월 30일 사직상소를 올리고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일기는 서울



에 머물면서 여러 어른들과 친구들을 방문한 내용 등 필자의 일상도 담았다. 사환일기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전형적인 사환일기는 아니다. 대개 사환이라고 하면 관직생활 중에 있었던 일만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일기는 필자 중심으로 사환의 실재를 보여준다. 필자 집에서 관직 임명 소식에 접하고 관직생활을 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전 과정을 기록하였다. 이 일기는 국가 중심적, 관직업무 중심적 관점의 사환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 생활 중심의 사환에 대한 내용을 전한다.

#### ⑥ 『신사이월척사소거서행시일기辛巳二月斥邪疏擧西行時日記』

1881년 상소일기이다. 필자는 경북 영주 출신의 만포(彎圃) 장효진(張孝鎭, 1847~1903)이다. 1881년 2월 7일에 사악한 무리들을 배척하라는 소를 올리기 위해 도성에 다녀온 일을 기록했다. 도성에 도착한 사람은 모두 270여명이었다. 장효진이 소두(疏頭)였다.

여러 유배일기들을 검토하면 그 내용에 일정한 패턴이 나타난다. 상당한 수 사람들이 서울에 함께 와서 상소를 하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소두를 유배 보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를 풀어주는 방식이 그것이다. 영주 출신 치암(恥庵) 김석규(金碩奎, 1826~1883)가 쓴 『치암서천록恥庵西遷錄』도 유사한 내용의 일기이다. 여행일기로 보기는 어렵고, 상소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채지 지식인의 정치활동 일기로 볼 수도 있다. 향촌에서 한양을 향해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은 대개 상소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⑦ 『양조실록兩朝實錄』

경북 청도 출신 망헌(忘軒) 이주(李胄, 1468~1504)에 대한 일기이다. 1489년 8월 27일 경연 참석부터 사후인 1505년 8월 4일까지 『성종실록』과 『연산군일기』에 그와 관련된 기사들을 초록한 것이다. 이주는 1498년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문인이라는 이유로 진도(珍島)로 귀양 갔다가 1504년 갑자사화 때 김굉필 등과 함께 효수(梟首)되었다. 중종반정 후에 신원되었다. 이 자료는 이주의 사환기록이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대한 사건 기록의 측면을 가진다. 그런데, 일기 기록에서 이런 양상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사환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되겠기 때문이다.

#### ⑧ 『천취록闡揮錄』

필자는 안동 출신 학림(鶴林) 권방(權訪, 1740~1808)이다. 사도세자 신원의 부당함을 주장한 류성한의 상소에 비롯되어 일어난 영남사림의 상소운동을 기록한 것이다. 이것은 ‘상소’이지만 동시에 ‘정치활동’이고, 동시에 소송이나 청원이기도 하다.

#### ⑨ 1894년 『서행(일)록西行(日)錄』

필자는 미상이다. 1894 2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개월 동안 종숙(從叔), 박명거(朴明舉)와 함께 회시(會試)에 응시하러 도성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것이다. 과거시험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과거를 보러 가고 오는 여정에 대한 기록은 별로 안 보인다. 아마도 과거시험 당사자인 필자의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일기를 여행일기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 일기자료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범주화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많은 일기자료는 이들 중 어떤 하나의 범주에만 속하지 않는다. 이것은 삶의 다양성이 빚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때문에 일기자료 분류는 그 내용과 주제의 중첩성에 따라 분류 자체도 똑같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 IV. 맺음말

1990년대 중후반 이후 조선시대 일기는 하나의 자료군으로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후 조선시대 일기가 더 많이 발굴되고, 국역되고,

또 연구되었다. 이를 통해서 관찬사료가 보여주지 못했던 조선 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이 조명되었다. 관찬사료가 국가 통치라는 목적을 위해서 국가기관이 생산한 것이라면, 민간의 일기는 필자들이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가 그 내용과 형식의 차별성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를 단순히 객관성과 주관성으로 요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일기’는 가장 일반적인 기록 형식의 하나였다. 국가 행정 문서들도 많은 경우 ‘일기’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기가 하나의 자료군으로 새롭게 인식된 이유는 민간의 일기를 통해서 기존 관찬사료에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시기에 일기가 새롭게 인식된 것은 그 형식보다는 기록 주체의 입장이나 기록의 목적 등에서 관찬사료와 차별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일기에 대한 분류에서 이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기자료 연구에 대한 기존 연구사 정리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즉시성’의 문제이다. 즉시성은 기록의 사실성, 다시 말해서 실제 있었던 상황에 대한 편집되지 않은 기록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필수적 조건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대한 최초의 설득력 있는 반론이 박현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에 따르면 현재 전해지는 일기자료 다수는 후손에 의해서든, 혹은 필자 자신에 의해서든 최초의 기록 이후에 수정되고 혹은 편집된 기록이다. 즉시성이 일기의 핵심적 특성으로 중시된 이유는 ‘현장성’의 근거가 바로 즉시성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박현순의 지적처럼 즉시성과 현장성이 밀접하게 관련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현장성’은 조선시대 일기자료를 역사학의 입장에서 파악할 때 중시되어야 할 사항임에 분명하다. 그것이 기록의 사실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즉시성보다 더 분명하게 현장성과 관련된 사항은 공간성 혹은 지역성의 문제처럼 보인다. 정재훈의 지적은 이것과 관련된다. “대다수 일기류 자료는 구체적인 지역 기반을 배경으로 함으로써 공간적으로 지역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일기 가운데

특정한 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여행을 하거나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기록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지역을 담보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 문집이나 연대기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생생한 공간적 구체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일기자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sup>21)</sup>

일기 형식으로 작성된 관찬사료와, 민간에서 생산된 일기가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지역에 대한 기록 여부이다. 관찬사료 일기는 지역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아마도 이것은 ‘중앙’정부가 스스로를 하나의 지역(local)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러한 관찬사료의 특징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연구에도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물 항목에 소개된 인물들 다수가 서울 출신이 아님에도 그들의 출신 혹은 거주 활동 지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흔히 일기자료의 가장 큰 특징을 그 서술 내용의 ‘시간성’에 둔다. 그 지적은 타당하지만 동시에 그 의의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시간성은 정부에서 생산된 기록과 민간에서 생산된 기록에 모두 표현되었다. 오히려 민간의 사정을 전한다는 측면에서, 현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성’ 혹은 ‘지역성’은 ‘시간성’보다 더 일기의 기록 ‘주체’와 관련된다. 시간은 모두의 시간이지만, 공간은 타자와 구분되는 각자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 이 논문은 2020년 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3월 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21) 정재훈,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가치와 종합조사의 필요성」, 『일기류 자료의 종합조사와 방법론』, 2019.(2019 영남문화연구원 한국학기초자료사업 학술회의 자료집)

## 참고문헌

- 구완희, 「朝鮮 中葉 士族孿子女의 贖良과 婚姻 : 『眉巖日記』를 통한 사례검토」, 『북현사림』Vol.8 No.1, 1985.
- 金蓮玉, 「古日記에 依한 古氣候 研究 : 眉巖日記를 中心으로」, 『韓國文化研究院 論叢』58, 1990.
- 김운우, 「咸陽 義兵有司 鄭慶雲과 『孤臺日錄』」, 『남명학연구』2, 1992
- 김정운,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활용 사례와 전망」, 『일기류 자료의 종합조사와 방법론』, 2019. (2019 영남문화연구원 한국학기초자료사업 학술회의 자료집)
- 渡部學, 「17世紀朝鮮における初等教育の形態－治谷趙克善をめぐって－」, 『武藏大學論集』7-2・3・4, 1959.
- 박현순, 「문집을 통해 본 조선시대의 일기와 일기쓰기」, 『朝鮮時代史學報』79, 2016.
-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24, 1997.
- 이성임, 「朝鮮中葉 兩班官僚의 經濟生活에 관한 一研究 : 柳希春의 『眉巖日記』 분석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논문, 1990.
- 이성임, 「16~17세기 일기의 傳存 양상」, 『朝鮮時代史學報』89, 2019
- 정구복, 「조선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한국학』Vol.19 No.4, 1996.
- 정구복, 「조선시대 일기의 사료적 가치」, 『장서각 ACADEMY 2012년도 역사문화강좌』, 2012
- 정재훈,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가치와 종합조사의 필요성」, 『일기류 자료의 종합조사와 방법론』, 2019. (2019 영남문화연구원 한국학기초자료사업 학술회의 자료집)
- 최은주, 「조선 시대 일기 자료의 실상과 가치」, 『大東漢文學』30, 2009.
- 황위주, 「조선시대 일기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2007.
- 황위주, 「日記類 資料의 國譯 現況과 課題」, 『고전번역연구』1, 2010.

## On the diary materials in Joseon dynasty

Lee, Jung-chul

The form and content of the diaries in Joseon dynasty are very various. For this reason, even though it has been recognized as a group of historical materials since mid-1990s, it seems that there has not yet been a comprehensive standard for classification. To go beyond understanding the Joseon Dynasty period, which was shown by the existing documents of the dynasty government, the expansion of the historical material groups is necessary to understand Joseon from various aspects. The diaries of the Joseon Dynasty are a group of materials that can contribute to this purpos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studies of diary historical materials is the issue of ‘immediate’. Immediateity was important because it was thought that the rationale for the veracity of the historical materials was immediate between the experiences and their records. However, as noted in previous studies, the idea needs to be mitigated. Rather, more clearly, it seems like a matter of spatiality or locality. This is because ‘spaceiness’ or ‘regionality’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diary’s record ‘subject’ than ‘timeiness’.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imeliness is locality in terms of conveying the situations of the private sector, not the eyes of the central government.

**keywords :**

Joseon Dynasty, diary, historical material, record, local, region

